

# 대검찰청 「아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 사무국」 개설

2020. 1. 9.

-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개도국의 아시아·태평양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및 상호 협력 증대를 위해 2020. 1. 9.(목) 13:00 「아·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 사무국」을 개설하였음
- 2019. 11. 20. 대검찰청, 월드뱅크, GFCE는 아·태 역량강화 허브 설립을 위한 3자간 MOU를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금일 대검찰청에 사무국을 개설하게 된 것임
-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「사무국」을 통해 아·태 지역 국가에 대한 맞춤형 사이버역량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, 긴밀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경 없는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음

## □ 개설 경과

- 사이버범죄 경유지로 이용되는 아·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개도국의 사이버역량 강화 필요
- 대검찰청은 2014. ~ 2017. 월드뱅크와 함께 개도국 사이버범죄 역량 강화 1차 사업(지침서, 평가틀 등 개발) 진행, 현재는 아·태 개도국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사업에 참여 중
- 2019. 11. 20.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평의회에서 대검찰청, 월드뱅크, GFCE\*는 아·태 역량강화 허브 설립과 대검찰청이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의 3자 MOU를 체결함

\* 사이버전문역량 글로벌포럼(GFCE) : 2015. 4. 출범한 사이버 역량구축 사업 정보 공유 및 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로서, 사이버보안, 사이버범죄, 데이터 보호, 전자정부 관련 업무 등 수행

- 이에 따라 2020. 1. 9.(목) 13:00,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센터에서 사무국 신설 및 현판식을 진행함

### < MOU 체결 개요 >

- 일시, 장소 : 2019. 11. 20.(수) 13:00,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평의회(COE) 2층 11호실
- 참석기관 및 주요참석자 : (대검찰청) 과학수사부장 이두봉, (월드뱅크) 수석 변호인 데이빗 사톨라(David Satola), (GFCE) 사무국장 데이빗 반 듀런(David van Duren)
- 내용 : (허브 목표) 아·태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, 다양한 이해관계자 교육과 협력 체계 구축, 사이버범죄 관련 지식·경험 등 공유, 전문가 교류 및 국제협력 조정, (역할) **대검찰청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**, 월드뱅크는 훈련교재 개발을 담당, GFCE는 협력 기반 플랫폼 역할을 담당

## □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

-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대상 사이버범죄 법률·수사기법 우수사례 등 교육 수행
- 해당 국가의 맞춤형 역량 평가 및 현지 실사 지원, 관련 국가와 공조 강화 협력 체계 구축 등
- 대검찰청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

### <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 주요 업무 >

- **G7 24/7 첨단범죄 네트워크 국가접촉점(national point of contact) 전문 수행**
  - 1997. G7 국가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로서 삭제·변조가 쉬운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존 요청 및 법률·기술 자문 등 수행(현재 86개국 가입)
  - 우리나라는 2000. 12. 가입 이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국가접촉점 역할 수행 중
- **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협력 전문 수행**
  - FBI 등 법집행기관 및 국내외 ISP 등과 국제공조협력 전문 지원

[사진 자료]



[ WB-GFCE-대검찰청 MOU 체결 사진 ]



[ 아시아태평양 역량강화 허브 사무국 현판 사진 ]